

한국 여성 미학의 사회사 ⑩ 근대여성작가들의 작가의식(1)

나혜석, 천경자의 등장

여자 미술반 따로 만든 서화 미술회

강성원 / 미술평론가

한국근대미술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개 1910년대를 기준으로 한다. 1911년과 1918년 서화미술회와 서화협회가 생기고, 이와 동시에 '미술'이란 개념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와 혹자간에 유통되기 시작하던 즈음을 우리 근대미술의 기점으로 잡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기서 '근대'란 서양어인 '모던(Modern)'을 옮긴 것이다. 사회전반의 '모던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관계의 여러 과정중 크게 볼 때 현재와 동시대적으로 인식되는 시기를(당대) '현대'라 칭하고, 그 이전 시기를 '근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가 갈라지는 시기는 보통 8.15해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여성작가란 해방전에 작품활동시기가 시작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작가를 일컫는다. 그러나 사실상 이 시기 한국여성작가들의 활동은 크게 두드러진 부분이 없다. 그 당시 여성작가들의 활동상은 현재 남아있는 여러가지 자료에 의존해서 재구성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자료조차가 매우 우연적으로만 보존되어 있기에 근대여성작가들의 작품활동 내용이나 예술관을 제대로 보기엔 상당히 미흡한 것이다.

이 작가들을 하나의 사적(史的) 범주로 분류하거나, 의미있는 문화적 실천의 한 장(場)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천경자의 <생태> 여성들의 삶의 양상을 감각적이고 뇌쇄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가는 뱀'에 비유해 표현했다.

근대이래로 지금까지의 우리 학문계 혹은 문화정책, 문화의식 자체가 일천하고, 열악한 수준이었기에 이들의 활동 내용이 올바르게 보존, 정리되어 남아있지 못했던 것이다.

여성자신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예술감상자층의 여성이거나 예술창작자로서의 여성이거나 '여성'의 활동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관심, 혹은 자의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에 이 부문에 대한 문화적 보고나 기록, 혹은 배려가 전승되지 못했다.

이같은 사회적 조건하에서 성장하고 작품활동을 한 여성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스스로의 전문적 태도, 평가조차 갖추지 못하기가 일쑤였다. 하물며 작가 자신이 자신의 실천에 대해 뚜렷한 자의식이 없는데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들이 이들의 작업을 바

라보는 태도야 그 이상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밖에 여성작가들의 이 당시 활동 성격도 낭만적, 감상적 예술태도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이 여성작가들의 작품과 활동내용, 혹은 활동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 시기에는 여성작가뿐만 아니라 남성작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예술적 태도도 기본적으로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들의 예술과 삶의 일치라는 주장과 이의 실천은 작가들의 작품세계, 활동내용이 사회적 공공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활동을 가질수 없게 했다. 남성작가들이 이럴진대 여성작가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서구적인 의미의 예술작가 즉 화가개념에 의한 작업이 제도적으로 미술계라는 틀안

됐다. 당시 서화미술회는 여자미술반을 미술회안에 따로 설치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여성들에 의한 작업도 남성작업과 동등한 미술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나혜석과 천경자, 한국근대여성작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두 여성들은 이런 근대적 제도미술개념이 생산하고 있는 당시의 한국근대미술계에서 서구적 작가의식을 지니고 활동했던 거의 유일한 당대의 두 여류들이다. 단지 나혜석은 여성해방의 논리들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려 했던 반면, 작품에서는 당시 남성작

가들의 세계관, 예술관과 동일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천경자의 작품들은 당시 한국여성문화가 지닌 의식구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강성원